

리포르만다

Reformanda
Bulletin of K.I.R.S.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2007.11
제2호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CORAM DEO

인 / 사 / 말 / 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학술원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개혁주의학술원을 설립한 이후 모두 네 차례의 국제 및 국내 학술세미나를 통해 칼빈연구와 개혁신학연구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학술활동 외에도 목회자를 위한 “갱신과 부흥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성도들에게 개혁신앙을 확산하기 위한 일종의 출장학교인 “개혁신앙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는 개혁주의 교육이념구현과 학문창달을 위한 “교수포럼”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개혁주의 신앙과 사상을 교육하기 위한 “이념교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개혁주의전문도서관과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운영 등을 통하여 최상의 개혁주의 연구기반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의 목적과 활동에 고무된 서울의 다른 기독교대학들에서도 유사한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대해서 한국교회의 개혁신앙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선명히 표방하고 나선 모든 고신교회와 고신대학교의 열망을 가슴에 안고 우리 개혁주의학술원이 계속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하오며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 11월 12일

개혁주의학술원장 이환봉 올림

개혁주의 학술원 설립목적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확립하여 항상 개혁하는 건강한 교회건설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과 방향 제시, 개혁주의 경건과 학문의 창달을 위한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주의 학술원 주요 연구활동 보고

2006년도

- ◆개혁주의 학술원 개원식 및 개원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 일시 : 2007년 5월 30일 · 강사 : B. J. van der Walt 교수(포츠프스트롬 대학교 교수)
- ◆개혁주의 학술원 헌판식 및 개혁주의 고서적 전시회
- ◆개혁주의 전문 도서관 운영 및 연구논문 DB 구축 시작
- ◆개원기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라틴/영어 대조판 CD 제작
- ◆제1회 종교개혁기념 국내학술 세미나 개최
 - 일시 : 2006년 10월 30일 · 주제 : 칼빈과 교회
 -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이수영 박사) · 칼빈과 교회연합운동(이상규 교수)
 - 칼빈의 교회론 : 교리와 목사직을 중심으로(유해무 교수) · 칼빈의 교회와 국가(안인섭 교수)

2007년도

- ◆개혁주의 학술원 홈페이지 개통 (2007년 3월 2일)
 - 홈페이지 주소 : www.kirs.co.kr 또는 www.kirs.kr
 - 홈페이지 내용 : 기독교강요 라틴어/영어/불어 대조판 검색, 전자도서관 운영, 개혁주의 관련도서 연재코너, 연구자료실(300여 논문 파일), 영상 강의실 등의 연구자료와 정보제공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제1권 「칼빈과 교회」 발간
 - 수록 논문 : 칼빈의 교회론/칼빈과 교회연합운동/칼빈의 교회와 국가/칼빈의 성찬론
칼빈의 권징론/칼빈의 교회 직분론/칼빈의 예배론/ 칼빈의 설교
- ◆제1회 칼빈연구 현상논문 전국 경시대회 실시 (2007년 5월 1일-2007년 9월 28일)
 - 전국의 신학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의 개혁주의와 칼빈신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인력 개발을 목적으로 현상논문을 모집하고 장학금을 수여함
- ◆제1차 「갱신과 부흥 포럼」 개최
 - 일시 : 2007년 6월 11일 (사직동교회당)
 - 강사 :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 주제 : “성화의 맥락에서 본 예수의 흔적”
- ◆국제 칼빈 학술 세미나 개최 (개혁주의학술원과 한국칼빈학회 공동주최)
 - 일시 : 2007년 8월 24일 · 강사 : Prof. Dr. Wim Janse (레이든대학교와 자유대학교 교수)
 - 주제 : 유아세례에 대한 칼빈과 베스트팔의 논쟁/요아킴 베스트팔의 성례론
- ◆고전 원문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전자도서(E-Book) 제작 시작
- ◆제2회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 일시 : 2007년 10월 31일 · 주제 : 칼빈과 성경
 - 강사 : I. John Hesselink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Calvin's Doctrine of the Scripture)
John L. Thompson (John Calvin on Biblical Interpretation)
- ◆제1차 「개혁신앙 아카데미」 개최
 - 기 간 : 2007년 11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 각 교회에 순차적 방문 실시
 - 시행교회 : 사직동교회/모든민족교회/창원한빛교회/하동지역연합교회(고남교회)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제2권 「칼빈과 성경」 12월 발간 예정
- ◆제1차 「개혁주의 학문창달을 위한 교수 포럼」 개최 예정
 - 일시 : 2007년 12월 4일
 - 강사 : 신득일 교수 / 주제 : “기독교 진리에 대한 과학적 변증과 성경 언어의 한계”



고전대역과 개혁주의의 맥락에서 본 개혁주의
강사 : B. J. van der Walt 박사 (前 남아공 포츠프스트롬대학교 개혁주의
주제 : ON CHRISTIAN IDENTITY AND RELEVANCE
일시 : 2006. 5. 30(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4401



개혁주의 학술원의 새로운 주요활동 소개

1. 개혁주의 학문창달을 위한 「교수 포럼」 (Faculty Forum) 운영

개혁주의 학문 창달을 통한 교육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학내의 정기적인 교수포럼을 운영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에 기초한 각 전공 분야와의 학문적 교류, 연구,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저술된 책과 논문을 요약 소개하고 토론하는 정기 study group 운영도 병행하려고 한다.

2. 개혁주의 교육이념을 가르치는 교양필수 과목의 공동교재 개발 및 출판

현재 학교의 교양필수 이념과목들(개혁신앙과 윤리, 개혁주의 사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화교육을 위해 공동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3. 개혁주의 신학과 학문 분야의 외국 우수 서적과 논문 번역 및 출판

개혁주의 신학과 학문의 최우수 외국서적을 번역 출판하여 보급하고 주제별 개혁주의 우수논문을 번역하여 도서출판 및 E-Book재작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학문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4. 라틴어 강좌 동영상 제작 및 웹 강좌 개설

미래의 개혁주의와 칼빈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위한 교육사업으로 웹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여 학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전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1차 『개혁신앙 아카데미』 시행

오늘날 우리 고신 교회와 학교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개혁주의 신앙의 부흥과 확산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개혁신학의 발전적 계승과 부흥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고, 정작 교인들에게도 개혁신앙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 현실과 요구에 직면하여 학술원은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개혁신앙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강사는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고 있다.

학사운영은 교회의 협력을 받아 학생을 모집하고, 강사가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여 해당교회가 정한 편리한 교육시간(주로 주일 오후 시간 이용)에 강의를 시행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고신대학교(개혁주의 학술원)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졸업증서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특전과 더불어 개혁신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위해 학술원 홈페이지의 웹 및 영상 강의실을 통한 원격강의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을 요청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첫 주일 사직동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민족교회, 하동지역 연합교회(고남교회당), 창원한빛교회에서 주로 제직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 가운데 순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강의 내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이상규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은 무엇인가?”(이환봉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관은 무엇인가?”(전광식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교육관은 무엇인가?”(김성수 총장), “개혁주의 교회의 문화관은 무엇인가?”(이성호 박사), “개혁주의 교회의 국가관은 무엇인가?”(황대우 박사).



사직동교회 「개혁신앙아카데미」

“제2차 개혁신앙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회들은 미리 학술원으로 예약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주로 교회의 제직훈련과 교사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활용하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문의전화 051-990-2266)

『제2회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The 2nd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in memoration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 제490년을 기념하여 개혁주의학술원 주최로 2007년 10월 31일(수) 고신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제2회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세미나」가 “칼빈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초청 강사는 헤슬링크 교수(John Hesselink : 미국 웨스턴신학교 학장, 미국칼빈학회장 역임)와 톰슨 교수(John L. Thompson : 미국 풀러신학교 교회사 교수, 칼빈신학교 헨리미터칼빈연구센터 학술전문위원)였다.

헤슬링크 교수는 “칼빈의 성경론에서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증거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밝히 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다. 톰슨 교수는 “칼빈의 성경해석 : 초기 개혁주의적 고린도전서 주석에 있어서 전통과 혁신”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하여 성경 주석가였던 칼빈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를 동시대 개혁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논하면서 오늘 이혼문제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논하였다. 교수, 목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미나의 ‘질의와 응답’ 시간에 고신대 교수와 목사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유익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국제 칼빈 학술 세미나』 개혁주의학술원과 한국칼빈학회 공동주최

지난 8월 24일(금)에는 고신대학교에서 개혁주의학술원과 한국칼빈학회의 공동주최로 국제칼빈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강사는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교와 자유대학교의 교수인 빔 안스(Wim Janse) 박사였으며 세미나는 “유아세례에 대한 칼빈과 베스트팔의 논쟁(The Westphal-Calvin Controversy on Infant Baptism, 1555-1556)”과 “요아킴 베스트팔의 성례론(Joachim Westphal's Sacramentology)”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되었다. 빔 안스 교수는 16세기 독일 브레멘(Bremen)의 개혁신학자인 알베르트 하르던베르크(Albert Hardenberg)를 연구하여 최고 성적인 쿼 라우데(Cum laude)라는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세계칼빈학회 회원이자 칼빈의 저술 전집의 비평편집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학이다. 그리고 지난 2007년 8월 21-23일까지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칼빈학회의 주장사로 초빙되어 칼빈의 성례론을 주제로 강의한 바 있다.

유아세례에 관한 강의에서 안스 교수가 내린 결론은 칼빈과 루터주의자 베스트팔 사이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더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불링거(Bullinger)와의 연합을 위해 1549년에 작성된 “취리히 일치신조(Consensus Tigurinus)”에서 칼빈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불링거의 입장에 동의해 준 것이 오히려 당시 루터주의자들을 자극하여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의 화해의 가능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아세례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세례가 세례식 그 자체가 효력을 가져오는 구원 혹은 중생의 성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들을 그

리스도와 접붙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즉 칼빈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이며 세례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는 가시적 표식이다. 칼빈이 세례를 하나님의 예정과 연관시킨 점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안스 교수는 지적했다.

루터주의자 베스트팔의 성찬론에 대한 안스 교수의 결론은 칼빈과 베스트팔 사이에 있었던 성찬 논쟁을 근거로 두 사람의 성찬론이 상반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베스트팔의 성찬론이 사실상 1549년 이전에 칼빈이 취했던 성찬론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획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안스 교수는 베스트팔의 성찬론에 대한 칼빈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라 베스트팔 자신이 작성한 성찬에 관한 논문들을 샅샅이 뒤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고 앞서가는 신학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고전 원문이 부재하고 원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신학적 현실로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주의학술원은 개혁주의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가치가 있는 고전 원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전 원문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 개발을 위해서 고전어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 세계 개혁신학의 본류에 진입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1차 『갱신과 부흥 포럼』

개혁주의학술원은 지난 6월 11일(월) 사직동교회(부산)에서 김남준 목사(열린교회)를 모시고 “성화의 맥락에서 본 예수의 흔적(갈6:17)”이라는 주제로 제1차 “갱신과 부흥 포럼”을 가졌다. 백석대학교 신학부 교수를 역임한 학자이며 지금은 평창의 열린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목사는 1997년도 ‘기독교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와 2003년도 ‘기독교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지킴>, 2005년도 ‘기독교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죄와 은혜의 지배> 등 수많은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하다.

이 강의에서 김목사는 목회자들이 가시적인 결과에 의존하는 피상적 목회에서 탈피하여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된 목회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진리의 전달자라는 사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명쾌한 외침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목사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예배당을 지어야하고, 또한 때로는 사회활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진리에 사로잡히고 지성으로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어가고 부패한 본성과 싸워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면적인 변혁과 쇠신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저런 일 하다가 일요일에 정해진 설교 시간에만 설교단에 올라가 성경을 들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한 시간에 외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 진리에 합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 죽음의 경험과, 그런 죽음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경험들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에 합치한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참된 사랑의 질서를 모르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무도한 인간들을 보는 사랑의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진리를 멀리 이탈하여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이 걸아 가는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말씀 선포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설교는 단순한 진리에 대한 객관적이 외침이 아니라, 삶이 동반하는 외침이 될 수 있고, 그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가운데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삶과 외침이 일치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피 맺힌 외침이 나오는 것이고, 뼈 사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과 몸부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을 그 진리의 삶에 합치시키고 자하는 갈망을 갖게 하는 참회의 역사가 목회의 꽃”이기 때문에 말씀을 외치는 짧은 설교 시간 동안 이런 역사를 기대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피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토혈의 감정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인들은 냉담할지라도 설교자는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붙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힘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목회자에게 있을 때 죄인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차 포럼을 통해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홀히 되고 왜곡되어 있는 목회자의 길과 자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경청할 수 있었다.



제1차 『갱신과 부흥 포럼』

개혁주의 전문도서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저자 『우르시누스 신학 작품집』 구입



개혁주의와 칼빈 원전연구를 위해 관련 희귀고서 100여권을 소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전문도서관은 최근 또 다른 매우 귀한 고서를 구입했다.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Catechism of Heidelberg, 1563)의 저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의 작품 전집이다. 이 전집의 출판년도는 1612년이며 출판장소는 하이델베르크이고, 출판사는 요한 란켈로투스(Johannis Lancellotus)이다. 책 제목 전체는 다음과 같다: “이미 하이델베르크와 노이슈타트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가르친, 매우 신실한 박사요 교수이며,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 자카리아 우르시누스 목사의 신학 작품집.(D[omini], Zachariae Ursini theologi celeberrimi, Sacrarum literarum olim in Academia Heidelbergensi & Neustadiana Doctoris & Professoris fidelissimi, opera theologica.)

이 책은 우르시누스의 제자이며 하이델베르크 아카데미의 신학 박사요 교수인 퀴리누스 로이테루스(Quirinus Reuterus)에 의해 3권으로 편집된 것이다. 제1권에는 교리교육서(Catechism, 혹은 교리문답서)를 비롯한 신학 주제를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2권은 다른 두 권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데, 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에 대한 변증과 여러 논쟁서들, 교회 문제를 다룬 논문들, 그리고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제3권은 이사야서 1-21장 주석이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짧은 해설과 중요한 신학 주제들에 대한 짧은 해설들도 포함하고 있다. 책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와 연관된 몇 편의 편지와 우르시누스의 아주 짧은 글들이 첨부되어 있다.

학술원 후원 방법

■ 매월 정기 약정 후원금 지원

- 자유롭게 매월 일정액을 약정하시되 가능한 구좌단위(1구좌 10만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년간의 후원전액 또는 특정사업 지정 후원을 위한 일시불 지원

- 1년간의 후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원하거나 특정사업(정기 세미나 및 특수 연구과제등)을 지정하여 단독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개혁주의 특별도서와 학술원 연구 기자재 및 비품 지원

- 칼빈 및 개혁주의 원전 고서,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특수 스캐너 등의 구입을 지정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학술원 후원을 위한 특별헌금 지원

- 주일 오후예배 시간 등에 학술원을 초청하여 설교와 특강으로 섬기게 하신 후 사업소개와 더불어 후원을 위한 특별헌금을 통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실 때에는 후원교회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학술원에 전화로 꼭 교회의 이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실 무통장 입금 및 후원 자동이체 계좌

▶ 농협 485-01-32852
예금주 :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개혁주의 학술원 후원교회 지원현황 보고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부흥을 위한 최상의 연구기반 형성과 연구활동을 약속합니다. -

(06.12.01 ~ '07.10.31, 단위:원)

순번	교회명	금액	순번	교회명	금액	순번	교회명	금액
1	가나안교회	1,000,000	20	매일교회	800,000	39	용호중앙교회	900,000
2	가음정교회	550,000	21	명덕교회	900,000	40	울산동일교회	1,000,000
3	거창교회	500,000	22	모든민족교회	900,000	41	울산시민교회	6,000,000
4	경일교회	1,100,000	23	부곡중앙교회	1,000,000	42	은성교회	100,000
5	광주은광교회	1,000,000	24	부산범천교회	1,000,000	43	제3영도교회	1,000,000
6	광주은성교회	800,000	25	부산북교회	700,000	44	제4영도교회	500,000
7	군북교회	1,000,000	26	부산비전교회	900,000	45	진목교회	1,000,000
8	김해중앙교회	1,000,000	27	부산서면교회	900,000	46	진해남부교회	1,100,000
9	남천교회	1,000,000	28	부암제일교회	500,000	47	참빛교회	2,200,000
10	늘빛교회	1,000,000	29	부평교회	400,000	48	창원교회	1,000,000
11	대구서광교회	400,000	30	사직동교회	2,000,000	49	창원한길교회	1,000,000
12	대양교회	500,000	31	삼일교회	900,000	50	창원한빛교회	2,200,000
13	대저제일교회	500,000	32	삼천포교회	800,000	51	하동교회	1,000,000
14	동부산교회	900,000	33	삼한교회	200,000	52	한영교회	1,000,000
15	동산교회	500,000	34	샘물교회	1,000,000	53	활천제일교회	1,000,000
16	동상교회	900,000	35	서울시민교회	1,800,000	54	문양근	800,000
17	동향교회	200,000	36	성도교회	1,000,000	55	신종식	200,000
18	등촌교회	600,000	37	성안교회	450,000	56	특별헌금 (모든민족)	15,000,000
19	마산삼일교회	1,000,000	38	성은교회	350,000			
합 계					67,950,000			

*후원금 입금 시 후원교회 이름으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lletin of K.I.R.S.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우)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149-1번지

전화 : 051-990-2266~8 FAX : 051-911-2526

E-mail : kirs@kosin.ac.kr Homepage : http://kirs.kr